

“중전 선언, 관련국 합의 땀 가능”

宋외교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수레 두바퀴”

송민순 외교교통상부 장관은 11일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각국이 합의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시기 논란에 언급, 이 같이 말한 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선언을 할 수 있다’ 할 때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일거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련국들 사이에서 다양한 차원의 회담은 항상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상황이 조성되고 관련국간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수레 두바퀴”라며 “한반도 평화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관련국들과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행동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내주 재개되는 6자회담에 대해 “(2·13 합의에서 규정된) 초기단계 이후의 다음단계에 어

떤 조치를 취할까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특히 북한측의 핵신고 문제, 불능화 관련 조치, 에너지(중유 95만 배럴) 지원하는 문제, 관계정상화 필요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자 외교장관회담에 언급, “이번에 6자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할 계획이지만 7월말이나 8월초에 열린다는 등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일정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6자 장관들이 정치적 추동력 차원에서 장관 회담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북핵 불능화 및 폐기 등 향후 절차 이행에 소요될 기술적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크진 각국 그 비용은 관련국들이 분담한다는 정신이 6자회담의 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이란 대치 ‘걸프만’ 긴장 고조

미 해함모 엔터프라이즈 증파

1차 이라크전 후 최대 해군력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과 이란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이란과 인접한 페르시아만 해역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사진)를 파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를 증파함으로써 걸프 해역은 미국의 1차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해군력을 증강 배치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는 증파가 아니라 정례적인 교체 배치라고 밝혔다.

미 해군은 페르시아 걸프해역에 배치된 함모 니미츠호와 임무 교대를 위해 핵추진 함모인 엔터프라이즈호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걸프지역에는 항공모함 존 C. 스테



니스호와 니미츠호가 배치돼 있다.

의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엔터프라이즈호가 걸프해역에 도착하는 2~3주 후에 니미츠호는 걸프해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엔터프라이즈호는 지중해와 중동, 한국 등을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작년 11월18일 노퍽

해군기지에 귀환했으며 이번에 최소 6개월 가량의 일정으로 걸프해역에 배치된다.

엔터프라이즈호가 배치될 예정인 걸프해역의 동쪽 끝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공급량의 5분의 2가 지나가는 해로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中, 불량식품 시인

식품감독국장 전격 사형집행

생산자 표시 강화 등 대책 수립

정사오 위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장의 전격적인 사형집행과 함께 중국 당국이 식의약품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를 시인했다고 홍콩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수출 식품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자 등 표시를 불이도복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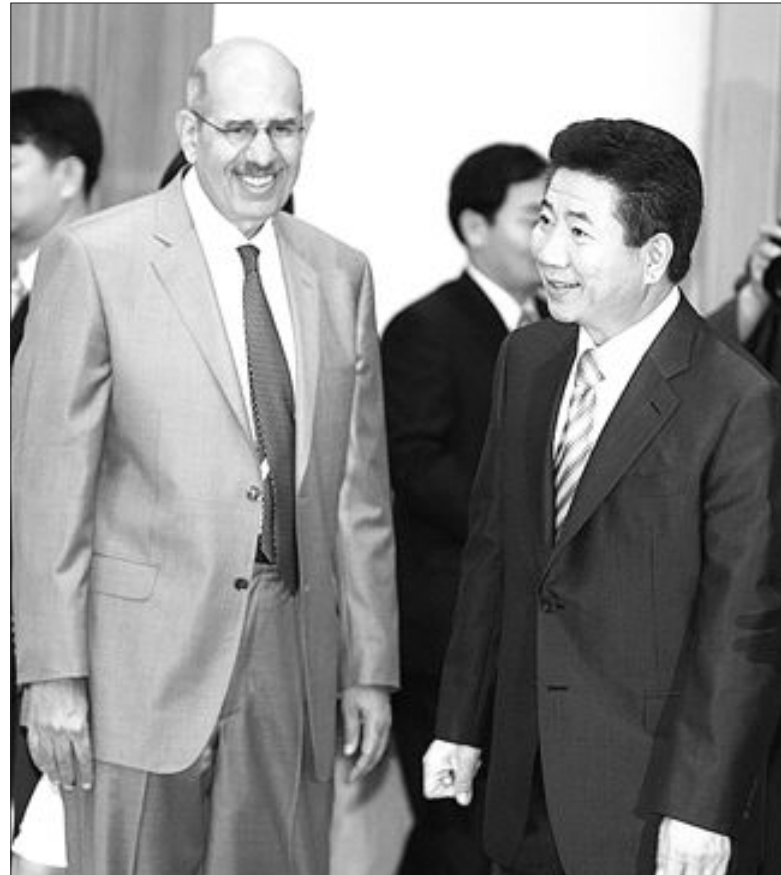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대변인 연장잉은 10일 “개발도상국으로 중국은 식품 및 의약품 감독관리를 상대

적으로 늦게 시작했고 인프라 시스템도 비교적 취약하다”고 말했다.

연 대변인은 “따라서 현재 우리가 맞서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전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연 대변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앞으로 유해 식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4곳의 유관부처와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강화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의약품 승인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인가를 책임진 담당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주요 간부들을 정기적으로 인사 순환하는 등 조치를 검토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창설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IAEA 협력 50주년 기념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IAEA 사찰단 14일 평양 도착”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밝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11일 “IAEA 사찰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가 구체적인 방북일정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루

프트한자항공 LH712편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IAEA 사찰단이 주말인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출발, 같은 날 북한 평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진 기자들에게 짧게 포즈를 취해준 후 VIP용 전기차를 타고 입국장을 빠져나갔으며 방한기간중 정부와 북한 핵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중국산 물도 ‘짜통’

베이징 생수 50%가 가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통에 담겨 유통되는 생수의 절반 이상이 가짜라고 내부 고발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라는 한 생수 회사 관리자의 말을 인용해 “가짜 생수는 수돗물이거나 무허가 상표의 물을 한꺼번에 통에 부은 뒤에 품질 보증 마크를 찍어 유통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일간지 경화시보(京華時報)도 “생수공장들이 통에 수돗물을

채워 가정에 배달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키는 한편 통당 3위안(약 360원)의 저급 생수를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켜 15위안(약 1천800원)에 공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이런 가짜 생수는 200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연간 2억통이 유통되는 업계에서 1억통 정도는 가짜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 관리 당국은 한 유통 대리점을 폐쇄하고 가짜 품질 인증서가 찍힌 라벨을 압수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베이징AP·로이터·교도=연합뉴스

서구식 식습관 女 여성

유방암 발병 위험 높아

고기와 흰빵, 우유, 푸딩 등 서구식 식습관에 익숙해진 아시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병의 위험이 두 배나 높을 수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BBC뉴스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미국 암연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암역학 및 예방’ 최신호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1천500명의 중국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구식 식습관을 가진 여성의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채식 위주의 여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발병률 증가는 서구식 식습관을 가진 여성의 비만을 증가와 관계가 깊었다.

발병률이 특히 높았던 여성들은 서구식 식습관을 가진 폐경기의 과체중 여성으로, 체질량지수(BMI)가 비만수준을 뜻하는 25를 넘어선 여성들에게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의 암질량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주요도시의 유방암 발병 및 사망률은 각각 37%, 38.9% 증가했다. /연합뉴스



“콘돔으로 만들었어요”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 4차 중국 리프러티브 헬스(Reproductive Health) 신기술-제품 전시회 패션쇼 중 모델들이 콘돔으로 만들어진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약품 '큐텐'은 "엄마 손을 위한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엄마 손을 위한 좋은 약"입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결책이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노년기, 노년기,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안구, 이명증
- 피부 미용과 노화, 이명증, 피부 미용과 노화, 이명증, 피부 미용과 노화
- 뇌졸중 예방
-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큐텐** www.kyuten.com

고객센터 080-022-2200